

T V

TV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Table with 3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선동열 vs 최동원’ 명승부 스크린서 부활

87년 3번째 맞대결 영화화... 박희곤 감독 ‘퍼펙트 게임’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라이벌로 평가받는 최동원·선동열이 나는 명승부가 스크린으로 옮겨진다. 제목은 ‘퍼펙트 게임’(가제).

제작사 초이스컷퍼처스는 8일 “서로 적대적 감정까지 가지고 있던 두 팀의 팬들을 하나로 만들어버린 두 남자의 명승부를 스크린에 남겨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영화 제작을 결심했다”며 “최동원 씨와 선동열 씨를 만나 영화화에 대해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84년 한국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따냈던 ‘강철어깨’ 최동원과 일본 열도까지 정복했던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은 현역시절 3차례의 맞대결을 펼쳐 1승1무1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1986년 4월 첫 선발대결에서 선동열이 1-0 완봉승을 거둬서 4개월 뒤 두번째 대결에서 최동원이 2-0으로 설욕했다. 이듬해 3번째 대결에서는 최동원과 선동열이 연장 15회까지 혈투 끝에 2-2로 우열을 가리지 못해 프로야구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를 연출했다.



영화는 3번째 맞대결을 펼친 87년 상황을 다룬 예정이다.

‘인사동 스캔들’을 연출한 박희곤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현재는 시나리오 작업 중이며 영화는 캐스팅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봉을 목표로 올 하반기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77세 순재, 날다

‘MBC 스페셜’ 11일 방영

1934년생, 우리 나이로 77살인 ‘국민 할아버지’ 이순재의 일과는 어느 젊은 배우 못지 않게 빠빠하다.

드라마 출연은 기본적으로 소화해야 할 스케줄이다. 중앙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순재는 대학 강의와 국민연금 행사 같은 과외 활동에도 열의를 쏟는다.

‘MBC 스페셜’은 11일 밤 10시55분 방송되는 ‘순재 날다’ 편에서 연기자 이순재의 열정 가득한 삶을 전한다.

일반적으로는 은퇴할 나이를 훌쩍 넘긴 그에게 2010년은 제2의 전성기다. ‘지붕뚫고 하이킥’이 끝난 뒤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 출연했고 SBS 기부 드라마 ‘사랑의 기적’과 ‘커피하우스’에도 얼굴을 내밀었다.

제작진은 김명민, 홍경민 등 후배 배우들의 입을 통해 이순재가 ‘가장 담고 싶은 배우’로 꼽히는 이유도 알아본다. /연합뉴스

왕년의 우승후보 1회전 2보(12~30) section. Includes a Go board diagram and text about a Go player's performanc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9일(음 4월 27일 庚寅) section. Includes zodiac signs and daily fortune prediction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1. It's the cheapest price I've ever seen (English), 2. いつお持(も)ちしたらいいでしょうか? (Japanese), 3. 牛 (Chinese), 4. 人面獸心(인면수심) (Korean).